

법보종찰 주변 골프장 “어불성설”

국보종의 국보 팔만대장경을 보듬고 있는 가야산을 지키기 위해 해인총림을 비롯 전 불자들이 나섰다.

지역 환경운동 연합 단체들과 함께 골프장 건설 승인계획 완전백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원회장 지관(李智寬, 64)스님. 6월 16일로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창립 4돌을 맞기도 한 지관스님을 동승동 가산불교연구원에서 만났다.

‘허가 취소’ 확답받겠다

—조선 8경의 하나로 여겨져 만물 경관이 훌륭하고 더구나 인근에 법수사와 심원사지 등 절터가 있는 가야산 백운동 일대에 48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골프장이 들어선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연 건설이 백지화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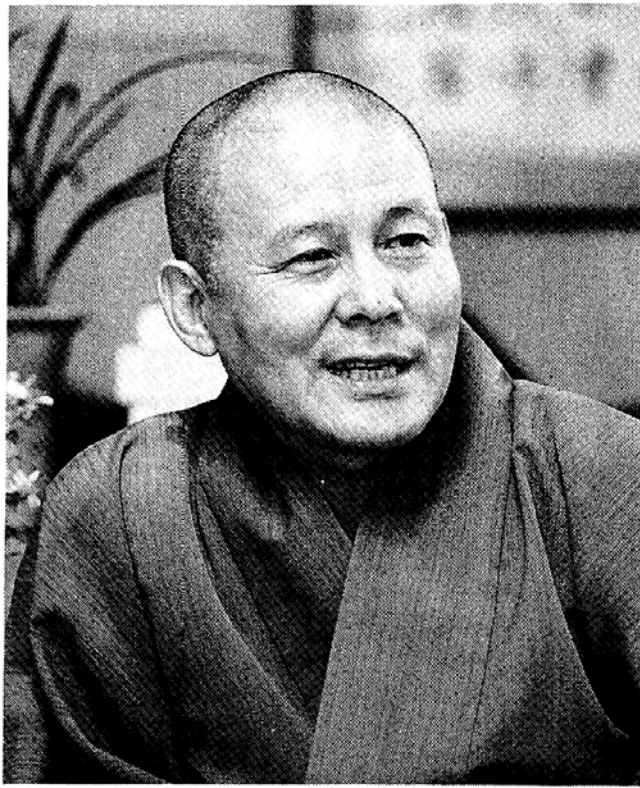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여기에 대거

—6월16일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았습니다. 교계의 가장 내실있고 비중있는 연구원 중 하나로 위치를 확고히 해 가고 있는 ‘가산연구원’의 창립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繼往開來」(옛것을 이어 앞날을 연다)라 하겠습니다. 한국사에 맥맥히 흘러내려온 전통불교의 정신적 자양을 재인식하여 그 연구교화에 주력하며 아울러 제반 과학의 불교적 수용을 가능케 한 인재를 지도·육성하여 불교발전 전에 일익을 담당코자 하는 것이지요.

—창립기념일에 맞춰 ‘가산학술상’을 선정 시상하시죠. 대상이 45세이하 소장 학자들인데...

▲이번이 5회째인데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면 우리 연구원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돼 교육과 출판 등에 관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인재양성입니다. 우리 연구원에 영입한 젊은 학자들을 보면 전국의 대학들이 골고루 들어있



수요인터뷰

골프장저지 해인총림 대책위원장
지관스님

자연은 정신도량... 훼손없이 후대에 물려줘야 가산연구원 설립4년 교계 인재양성 기여

환경운동연합 산악연맹 등 30개가 넘는 민간단체들이 연합해 저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과는 두고봐야겠지만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치성 스포츠인 골프를 즐기는 일부 사람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휴식처가 될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봅니다.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범국민 저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사업진행을 보면 지난 9년 6월19일 시행 허가가 나고 92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거쳐 지난해 12월12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난 후 12월말인 12월24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이 났는데

해인사에서 언제 이일을 아셨습니까.

▲우리 해인사에서 그 사실을 안 것은 얼마 안돼지만 다른 산에 대규모 골프장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종교인들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지역 주민들은 생태계파괴, 산사태 및 대형홍수, 맹독성 농약살포로 인한 상수원 및 대기오염 등을 우려해 시행허가 직후부터 반대해 왔다고 합니다. 자연은 그 지역을 소유하거나 살고있는 어느 특정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물려줄 인류의 가장 고귀한 자산이지요.

스니다.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수가 적어 외롭습니다. 학문은 개성이 있어야 빛이 납니다. 각각의 개성과 전공을 마음껏 살릴 수 있게 우리 연구원이 밑바침이 돼 주고자 합니다. 가산 연구원에서는 교육·학술·출판·교화·불교대사전 편찬 등의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분어가 △한국불교사상 △원전 연구로 오는 2천년까지 계속 「한국불교사상대계」가 집필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엄 선 정토 유식 천태 등 사상 사대별로 6권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산불교학술총서」는 1년단위로 프로젝트화해 추진, 가산학보 등을 통해 발표된 것을 묶을 예정입니다.

한국불교사상을 심도있게 연구 발표하는 것은 물론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원전으로 연구하고 번역할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인재양성에 주력한다면 10년후부터는 종단발전에 다스나야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내년 가을 대규모 국제학술회사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주제는 「세계승가공동회 소의 경전과 수행체계 현황」입니다.

모든 불교나라의 대학자들을 대거 초청할 예정입니다.

—제방 강원과 종립 동국대에서 오랫동안 후학들을 지도해 오셨는데 요즘 학문 풍토에 대해 아쉬움은 없으신지요.

▲요새 학생들은 깊이가 부족한 듯 합니다. 행사때문에 경강도 있고해서 한 학기에 기껏해야 10주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다가 깊이있게 공부하는 풍토가 부족합니다. 요즘 강원도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지만 전통문화방식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강원방식 교육 필요

—10여년전부터 불교사전 편찬의 원력을 발원, 10여년간 15만 항목을 추출해 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라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불교는 사상 및 문화전반에 걸쳐 우리 민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을 뿐 아니라 민족사 중흥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기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공간적으로 불교문화사상 전반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도모기 위해 불교사전 편찬원력을 발원했습니다. 83년 시작할 때는 부처님의 은혜를 감

약력

- 1932. 5. 11 경북 영일 생
- 1976. 동국대 철학박사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경국사 총서사 주지 역임
- 1986~1990 동국대 11대 총장 역임
- 현재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해인사 주지
- 저서 (대혜사장주해) <선종약사> (조계종사) <가야산해인사지> (한국불교교역사연구역주) 등

는다는 생각으로 환갑때 좀 발간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오다 보니 일이 커졌습니다. 오는 99년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급한 생각은 없습니다. 사전편찬은 교계가 꼭 해야될 사명이고 한국불교를 위하는 불사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추진중입니다.

—‘불교 대사전’ 편찬작업은 어느정도 진행중이십니까.

▲전 10권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제1권의 약 2만5천항목의 원고정리를 마무리, 출간할 계획입니다.

—교계에는 연구단체들이 많습니까만 제 기능을 못하는 연구원들도 여럿입니다. 도움말씀을 주신다면.

▲설립할 때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갖고 목표를 형식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 경비는 들었습니다. 연구원 설립이념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면 성과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경숙 기자

나의 수행일기

햇수로 오년이 넘었다. 가족과 함께 경주로 떠난 여름휴가에서 인생의 한 갈림길이 시작되었다. 속소에 농인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까만 표지의 금박 글씨가 새겨진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경주는 수시로 방문하는 편이었고, 그 속소 또한 자주 묵어가는 곳이었다. 서랍을 열면 늘상 몇개의 메모지와 엽서들이 정리된 채 놓여있었고 항상 푸른 표지의 성경 한 권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익숙하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해 여름에는 성경과 같은 크기와 두께의 또다른 책이 있었고, 손으로 들어올리자 ‘불교성전’ ‘불국사’라는 금박 글씨가 적혀있었다.

불교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때마침 걸려있던 시기였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러다가 결국 남들처럼 죽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죽은 후에 가야할 곳은 어디인지...

삼십여년 믿고 따르던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무서운 숲에서 빠져나오는데 아무런 도



임현담 소설평론가 사산의원 원장 수석

준근 길에 신문에서 법정스님의 인도기행문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마치 지금 막 신문을 덮은 듯 아직 기억이 생생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오후가 되면 갠지스의 기슭에 앉아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과 죽음을 보면서, 인간 존재의 심연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대목을 읽으며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으니 모르기는 했어도 얼굴은 발개졌을 것이었다. 이제 불교라는 하나의 도구를 손에 잡았고, 미진하나마 나름대로 책에 쓰여진대로 수행을 하고 있으니, 인도에 가면 존재의 의미와 죽음의 심연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예감을 받았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는 이 아무도 없는 인도대륙에 배낭 하나 메고 혼자 도착했다. 한밤중이었다.

생사고뇌에서 출구 열어준 인연

피서지서 만난 ‘불교성전’...삶의 의미 제시

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없이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구원되리라는 대답이 뒤따라왔다. 그리하여 어느 일요일 성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죄송합니다. 내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글자로 작별인사를 드렸고,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으로 불교성전이라는 한 권의 책을 손에 잡게 된 것이었다.



가족들의 작은 반대가 있었으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삶과 죽음,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왔던 곳과 죽은 후에 가야하는 곳에 대한 관심이 스스럼 없이 내게 만들었다. 그것을 풀지 못한다면 살아갈 열두가 나지 않았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내가

왜 죽어야하는지 모르며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위장된 평화였다. 그때 진정으로 어떤 커다란 질문에 달리 걸려들어 이승에서의 인연을 끊고 출가하여 산으로 들어가는 스님들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죽어줄 수는 없었다. 철저히 혼자 가야 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날이었다.

고행이 수행이 된다는 것을 안 것은 인도였다. 찌는 듯한 더위 아래 길을 가면 숨차고 괴로웠다. 도대체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스스로 타타다가 그렇게 고통이 나타나는 부분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아픈 다리를 가만히 바라보자 나는 사라지고 고통만 남아있었다. 고통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었다. 바라보는 동안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니 무어(無我)라는 것이 앞에 열리기 시작했다. 고통은 마음을 고정시켜 이리저리 날뛰지 않게 묶어 주었다. 고통은 스승이었다. (다음호에)

밤이 짧았다. 마른 스포츠가 물기를 빨아들이듯 며칠 사이 불교에 대한 첫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사실 문제되었던 것은 흘러가는 인생, 삶과 죽음, 그런 것이었다. 행복하게도 비교적 간단하고 짧은 대답들이 넘어가는 책장 사이사이에 놓여있었다. 그렇게 빠른 시간 동안 외우다시피 독파한 책은 기억에 남는 듯 했다. 눈앞 비늘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며 숲에서 빠져나가는 출구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더구나 책 뒷부분에 쓰여진 간단한 수행법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어, 쓰여진대로 하리 세우고 가부좌 틀고, 허를 천정에 붙이고 눈을 반쯤 감았다.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바라보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문지방에서 던진 선사의 질문

옛 선사께서 이르셨다. “진리의 길은 어렵지 않으나 버릴 것은 오직 간택하는 마음뿐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는 절로 탁 트여 대낮처럼 밝으리라.”

분별하는 마음, 그것은 이른바 지식의 원천이요, 세간사의 바탕이다.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릴 줄 알아야 하고 길고 짧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면 바보 멍청이 소리를 면할 수 없다. 현대 과학문명의 눈부신 발전도 실은 조개고 나 누어 보는 인간의 분석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현대의학이 인간의 몸을 부위별로 나누어 심장 전문, 위 전문, 간 전문... 식으로 다루는 것도 분석능력의 덕분이다.

그런데 옛 선사는 무슨 체게묵은 소리를 하는가, 분별하지 않아야 도에 통한다나?

성경에서는 아담·이브가 선악과(사과)를 한 입 베어문 게 원죄라고 했다. 선·악을 옳게 분별하기 시작한 것이 왜 원죄인가?

등과 서는 분별이다. 그러나 동쪽에 있던 시냇물을 건너가면 그때는 시냇물이 서쪽에 있게 된다. 동·서는 분별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상대적이다.

물컵과 주전자를 나란히 놓으면 컵은 작은 것, 주전자는 큰 것이지만 거기에 항아리를 가져다 놓으면 주전자는 작은 것, 항아리는 큰 것이 된다. 크고 작다는 것은 분별이지만 상대적이다. 작은



협찬: 김재환